

주의봉헌 축일

기도서 487면(C해)

제1독서: 말 라	3,1-4
제2독서: 히 브	2,14-18
복 음: 루 가	2,22-40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루가 2,34)

■ 감 론



위하는 삶

김 치 삼 신부

잠결에 요란한 소리에 잠짝 놀라 깨어 보니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었다. 위급하고 급한 전화인줄 알고 받아보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 짜증도 났으나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잠자리에 다시 누우니 잠이 오지 않는다. 늙음은 탓일까?

담배를 한 대 꺼내어 피워 물고나니 어제밤의 일이 생각키운다. 한참 일할 젊은 30대 청년이 나의 손을 꼬옥 잡고 "신부님! 내가 일년만 더 산다면 남을 위해서 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주우신데 오신 신부님, 천상에서 만나봐요". 마지막 중부성사를 받고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던 그 밝은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잠깐 그를 위해 기도하고나니 사제생활의 보람을 안겨다 준다.

우주의 존재질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삶을 근본으로 삼고 생존하고 있다. 우주를 보전해 그 어느 존재도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동성당의 십형 종탑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은행나무를 보더라도 어쩌다가 성당 마당에 심겨져서 30여년간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있다. 요즈음 주님의 손길이 깃들임을 더 느끼게 해주고 있지만,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이 맑은 공기를 내어 주면서 전동신자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인간인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할까? 참된 부모의 사랑도, 참된 자식의 효도도, 참된 부부의 사랑도 상대를 위하는 삶에서 기원을 찾게 된다고 본다.

오늘 성모님과 요셉성인께서도 아기 예수님을 안으시고 성전에 가서서 정결예식후 봉헌하셨다. 이 봉헌은 단순한 봉헌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위한 철저한 남을 위한-봉헌이라고 본다.

가만히 살펴보니 남을 위해 살 때 우리 마음 기뻐지고 남을 위해 뛰는 많은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늘 웃음이 있지 않은가. 마태오 7장 12절에도,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데로 남에게 해주어라"고 하셨다.

우리로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줄 수 있을 때 기쁜 것이고 언제나 남을 위해 기도하고 살 때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1986년도 하느님과 함께 사는 복이 새해 복이라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이 남을 위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전동 주임신부)



정치 부재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개헌」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크게 엇갈려 있다. 개헌을 깊숙히 다루는 것을 「정쟁」의 차원으로 보는 여당의 견해가 그 하나이고, 그에 맞서는 다른 하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라는 견해로 보는 야당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두려운 일은, 야당의 개헌 서명운동을 제도적인 장치로 막아의 법조치하겠다는 여당의 자세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가두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야당쪽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은 점이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놓고서 그 견해가 너무나 엇갈려 있는 점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견해차이 때문에 응어리가 남는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할말이 있게 된다. 아내의 불만과 남편의 짜증,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보다는 제 입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가정문제는 서로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풀린다. 어려운 생활전선에서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 할까? 부부간이라면서도 애정있는 말 한 마디 듣지 못하는 내 아내는 얼마나 외로울까?—이러한 감정이 서로 통교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그마한 생활의 변화만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된다. 이때에 변화의 주도권을 남편이 잡을 때,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된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적으로 보아 남편의 힘(?)이 강하니까.

정치문제는 왜 안될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설득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내세워 자중하라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외채문제가 심각할때도, 어마어마한 상징물이나 방송국을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힘을 가진 여당이 정치를 하기 보다는 「행정」을 하는 인상을 주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수고하셨습니다

□교구 사목지침 연구㉞ 성체안에 하나되는 본당공동체

신비체이며 하느님 백성인 본당

편 집 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요 또한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 신비체와 하느님의 백성은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써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신비체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진 인류가 통교를 이룰 때에 완성되었지만 현세에서는 성체성사 거행으로 제도적인 교회와 은사적인 활동이 중합을 이룰 때에 이루어진다.

본당은 주교로부터 파견된 사제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에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 안에 볼 수 있게 현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당은 주교로부터 파견된 사제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에 교구와 연결되고 전체교회와 일치된다. 그러므로 본당의 모든 신자들은 미사참여를 통하여 자기들의 교구 주교와 연결되고 하느님 백성 전체의 공동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고 본당의 모든 사목활동의 중심의 성체성사 거행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관계는 공동체인 성격을 갖게 된다. 하느님께 이르는 우리 인간의 길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길은 공동체를 통해 매개된다. 공동체를 통한 인간 상호간의 통교는 길이며 동시에 목표로

써 마지막으로 하느님나라 안에서 이 통교가 완성될 것이다.

본당은 이러한 통교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먼저 하느님과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을 받으며 또한 신앙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본당은 서로 신앙체험을 나누고 서로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본당을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전례의 공동체이다. 공동체 일원인 모든 신자들은 전례 거행을 통하여 교회와 일치하고 각자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전례에 참여해야 하고 사목자는 공동체의 중심이 전례 거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당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모든 신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줌으로써 사랑으로 일치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모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사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웃과 함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나누어야 한다. 우리 각자는 본당 공동체 일원으로서 묵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리하여 성체안에 하나되는 본당 공동체를 이룩하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갈수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가피한 어려움들을 성실과 조화(調和)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갈수록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소중한 새 생명들을 낳아서 기쁨으로 양육하며,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中心)이자 초점으로 삼는 은총의 공동체가 되어 각 사람의 투신이 결실을 맺도록 하고 나날의 새로운 활력(活力)을 끌어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신앙인의 공동체를 위한 도서안내

공동체와 성장

이 책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 이상을 나누며 사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저자가 14년동안 정신장애자들의 공동체인 라르쉬에서 얻은 생활체험과 각국에 있는 동료들의 체험담을 듣고 터득한 것들을 담고 있다.

J. 바니에 지음 성찬성 옮김 값 3,200원

가 정-사랑과 생명의 터전

가정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세상을 경험하는 생명의 터전이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신을 바치는 집진적이고 지속적인 회생을 통해 서로를 완성하는 사랑의 터전이다.

이 터전이 편안하고 튼튼해야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책은 현대의 교황님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들려주신 말씀을 엮었다.

성찬성 옮김 값 3,000원

구입처: 성바오로 서원

* 개 원 *

김생기 산부인과 의원

전주시 고사동 1가 25번지 (신라당 옆, 윤호영의원 내)

☎ 6-6077

전문의 김 생 기 · 신 수 미(설비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칼라TV·VTR·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일체



금성 북전주 대리점

팩토링 분할 판매

(교우분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춘기(베네딕도) 김금수(세시리아)

※ 금성 부녀사원 모집중 전북대학교 입구

☎ 3-2419 74-2419

교 구 소 식

1. 성미 후원회 제9차 월례미사 : 2월 3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전북은행 남문지점 4층), 미사집전-지정환 신부님
 2.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월례회 : 2월 3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특강-박정일 주교님 : 「수도자들의 역할」
 3. 86 교리교사 동계연수회 : 2월 3일(월)~2월 5일(수) 2박 3일, 장소-가톨릭센터
내용-교리교사 자질 함양 및 신앙심 고취 ※ 특히 신임교사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성모 푸른군대 특별피정
일시 : 2월 7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덕진천주교회
초대강사 : 박종상 신부님 및 회장단
 5. 성소 피정안내 : 대상-남자 고등학생(고교진학 예정자 포함)
일시-2월 23일~25일(2박3일), 장소-프란치스코회 서울 정동수도원
참가비 : 3,000원 문의처 : (02) 753-4637 · 753-4690
 6. 테클라 모임 : 오늘 오후 2시, 성바오로서원, 수도생활을 원하는 미혼여성
- ※ 감사합니다 : 금번 세상을 떠나신 저희 어머니(서귀분·데레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태수 신부 올림-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2월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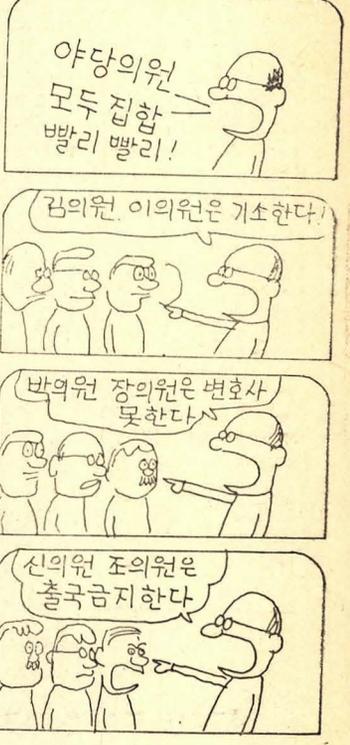
주님의 날 2월호는 2월의 기도, 크리스찬 가정소개, 사순절의 유래와 의미, 약수터, 교구사, 생활전례, 신앙체험담, 농사정보, 장수분당 동화공소 소개, 공소예절, 축일표와 교구 행사계획표 및 교구 소식 등이 실려있다.
특히 이번 호부터는 매달의 대표 성인이 소개된다. **홍보국 발행 300원**

※ 가정기도 시편 : 24 : 1-6 독서 : 집회서 [28 : 13-19 복음 : 마태오 12 : 17-21

잡간!

있으셨나요?
우리 교구는 지난 해에 케루에 선교사로 세 분의 신부(정승현 신부, 김윤섭 신부, 방의성 신부)를 파견했었다. 성장된 교구의 면모를 과시한 일대의 큰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들의 관심은 과연 어떠한가?
지난달 「미바」회에서 우리 선교사에게 선교용 차량 1대를 기증했다. 그리고 다른 교구에서는 많은 위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위문의 편지 한 장 없이 지내온 우리들의 무관심이 마음아프다. 신부님들은 지금 건강하게 어학공부를 잘 하고 계시며 조만간에 선교활동을 할 임지로 가시게 된다.
선교사를 돕자.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한 장의 위문편지라도 보내드리자. 우리 모두 잊지않고 뜻깊은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자.
※ 「미바」회관, 무사고 운전 및 탑승에 감사하는 헌금으로 선교용 차량이 필요한 곳을 돕는 단체다. 「1km 안전운행에 1원씩」의 성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줌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요심이 (652) 김병오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3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1986년 2월 16일(일요일) 오후 1시
2. 장소 : 전북예술회관(구 시청 옆) 4층 공연장
3. 부의안건 :
 - ※ 총회참석시 지참물 : 조합원통장, 주민등록증, 인장 1986. 1. 31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종두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고려안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여러분께 염가봉사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신호동 앞)
2-0102 · 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훈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친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피지 |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
이승렬(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보좌신부님 인사이동 : 새로 오신 김기곤(프란치스꼬) 보좌신부님 환영합니다. 김의철 신부님은 중앙성당으로 가셨습니다. 두분의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2. 주의 봉헌축일 : 오늘 초 축성예식 있습니다 모두 제대초를 봉헌합시다
 3. 구정활동 위령미사 :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빠짐없이 미사예물 봉헌합시다
 4. 대의원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들과 사목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성가대 정기총회 : 4일 어머니미사 후
 6. 성지가지 가져오세요 : 지난 성지주일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다음주까지 꼭 가져오세요
 7. 노송 울뜨레아 임원개편 : 회장-박춘근, 부회장-박대복·정원용, 총무-이치중·서성남, 서기-한영순, 재무-강희자, 수고하셨습니다
 8. 예수성심회 월례회 : 4일 어머니미사 후
 9. 금주 전례담당 : 제4조, 차주는 제1조가 담당입니다
 10. 아파트 성모회 임원개편 : 회장-이영희, 부회장-신정숙·김정희, 총무-남복희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19,650원 교무금 : 464,000원
신축금 : 16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향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 강력향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식-2일 공식미사 후
1.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 후 강당에서 있으니 많은 교우분들은 예비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 모집합니다
 2. 봉성체 : 7일 오후 3시부터 환자방문이 있어오니 가족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월 2일 주의 봉헌축일에 초축성이 있어오니 교우분들은 성당에서 제대초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모회 : 4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5.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사	최창립	김한기	박병환	문 치 구
공식미사	신영창 김은경	차상열	한상철	신 교 분 과
저녁미사	진경선	강경호	김은숙	손 옥 연

□ 지난주 봉헌금 : 어린이헌금-9,830원
일반주일금-382,971원 교무금 : 113,5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환송 : 권영균 신부님!
3년 3개월동안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환영 : 김기수(사도 요한) 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구정 (민속의 날) 활동위령미사 : 9일 (다음주일) 먼처가신 선영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라고 정성 어린 미사를 봉헌합시다
 3. 초 축성 : 오늘 공식미사
1년간 가정과 제대에서 할 초를 준비해 주세요
 4. 꾸리아 회합 : 세계주 공식미사 후
 5. 성우회 : 세계주 공식미사 후
 6. 삼회 : 8일 오후 2시
 7. 금주 청소 : 월-사도의모후pr, 토-자비의모후pr
차주 청소 : 월-평화의모후pr, 토-구세주의모친pr
 8.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진 ②정동민
차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상인 ②조성호
- 지난주 봉헌금 : 211,610원 교무금 : 679,150원
구라주일헌금 : 150,241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 최상범 신부님 환영식 : 공식미사 후
환영연회 : 12시30분
1. 사목회 :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30분
 4. 자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주일학교 자모회 : 4일 오전 11시
 6. 다음주 봉헌담당 : 김병오 부부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영희, 독서-①최병태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 ※ 구정활동 위령미사예물 :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오늘 공식미사시 초 축성식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849,110원 구라주일금 : 303,770원
교무금 : 317,5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구정활동 위령미사 :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시다
 2. 교리시간 안내 : 화요일 저녁 7시30분(사제관)
일요일 11시30분(지하 성당)
일요일 오후 5시-중·고학생
 3. 축하합니다 : 김호근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 입학
 4. 남생 푸르실리스타 탄생 : 김인규·이성렬
 5. 주일학교 교사모집 : 신심있고 용모 단정한 대학생
 6. 오늘의 모임 : 꾸리아
 7. 구역기도 모임 : 배하아파트 C동 406호
송율리안나 매-4일
- 지난주 봉헌금 : 636,540원 교무금 : 740,000원
미수금 : 200,0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1. 환영합니다 : 새 본당신부님 이상섭(모이세) 신부님
 2. 초 축성 : 공식미사에 봉헌해 주세요
 3. 구역대의원회 : 공식미사 후
 4. 구정 미사예물 : 8일까지 접수해 주세요
 5. 금주전례 : 해설-이우동, 독서-김봉길학사·강덕용
봉헌-황남용 회장 부부
차주전례 : 해설-안현주, 독서-여정진·양대환
봉헌-황옥섭씨 부부
 6. 신용조합 이사회 : 5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37,240원 구라주일헌금 : 43,800원
교무금 : 81,000원